

1월의 계란전망

강재명
분회 지도조사부 과장

“월중 전반적인 약보합세에서 구정 이후 하락세예상”

희망에 찬 90년대 서광을 밝히는 경오년 말(馬)의 힘찬 도약이 시작됐다.

80년대 마지막 해인 89년은 우리 양계업계로써는 호황의 한 해를 추가했다. 채란업계로서는 연중 특란 60원대를 형성하고 장기화되면서 어느정도 안정된 케도에 진입한 듯한 느낌도 든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특이한 것은 계란값 호황에도 불구하고 입식을 자제하여 병아리생산을 감축시킬 만큼 의식구조가 변화했고 그와 더불어 입추패턴도 변화를 보였다. 가을입추보다는 봄입추가 증가한 점으로 보아 1990년 봄입추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가을입추의 변화에 따라 향후 계란가격의 안정에 크게 작용하리라 여겨진다.

□11월, 12월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생산 추정

을 해보면 초생추사료는 11월이 3,761%으로 전월에 비해 3.2%, 전년도 동월에 비해서는 비슷하고 12월은 전월 및 전년도 동월에 비해 증가세를 보여 가을 입추 시즌이 지난 이후 입추수수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월이후도 병아리값의 회복과 더불어 실용계 생산 잠재력은 어느해 보다 높기 때문에 병아리 생산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사료는 11월이 122,293%으로 12월 또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추세가 예상되어 계란생산량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수소비기인 구정 이후 일시적인 물량체화는 예상된다.

□1월 이후 2월 초순까지의 계란값 변화를 보면 기간중 소비량의 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여 일시적인 물량체화 내지 부족현상이 예상된다. 1월 중순까지는 신정 이후 소비가 다소 침체되면서 중순 이후 구정 수요로 인해 물량소화가 예상, 가격은 보합세가 예상되며 구정 이후는 개학과 더불어 제빵업계의 소비감소로 상당히 가격불안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란값의 호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가을입추 시즌에 입추를 미뤘던 농가들이 뒤늦게 12월 들어 입추열이 살아나면서 중추병아리는 품귀현상을 보이고 병아리값 또한 회복세로 변했다. 이러한 입추패턴은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병아리 또한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 같아 값은 초창세가 예상된다.

향후 계란값 하락으로 인해 노계도태 물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태시기를 조금씩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 믿을 수 있는 중추 수시 분양중 -
상 경 능 장
전화: (0461) 741-6080, 6952

표 1. 산란용 P.S 입식현황

(단위: 천수)

| 년도별 월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계 | 비 고 |
|--------|------|------|------|------|------|------|------|------|------|------|------|------|-------|-------------------|
| 88 | 52.0 | 21.5 | 16.1 | 27.9 | 65.6 | 38.4 | 8.3 | 41.9 | 2.9 | 24.0 | 49.4 | 55.6 | 403.6 | 실제입추수수 (수입계포함) |
| 89 | 84.9 | 40.1 | 23.5 | 41.6 | 56.1 | 28.4 | 20.4 | 14.8 | 67.5 | 45.3 | 40.6 | 40.0 | 503.2 | |
| 89 | 45.3 | 31.8 | 28.7 | 68.6 | 49.4 | 25.4 | 25.8 | 17.0 | 21.5 | 16.5 | 27.8 | 50.8 | 408.6 | 89년국내P.S 생산계획량 |

그림 1. 대란고시가격(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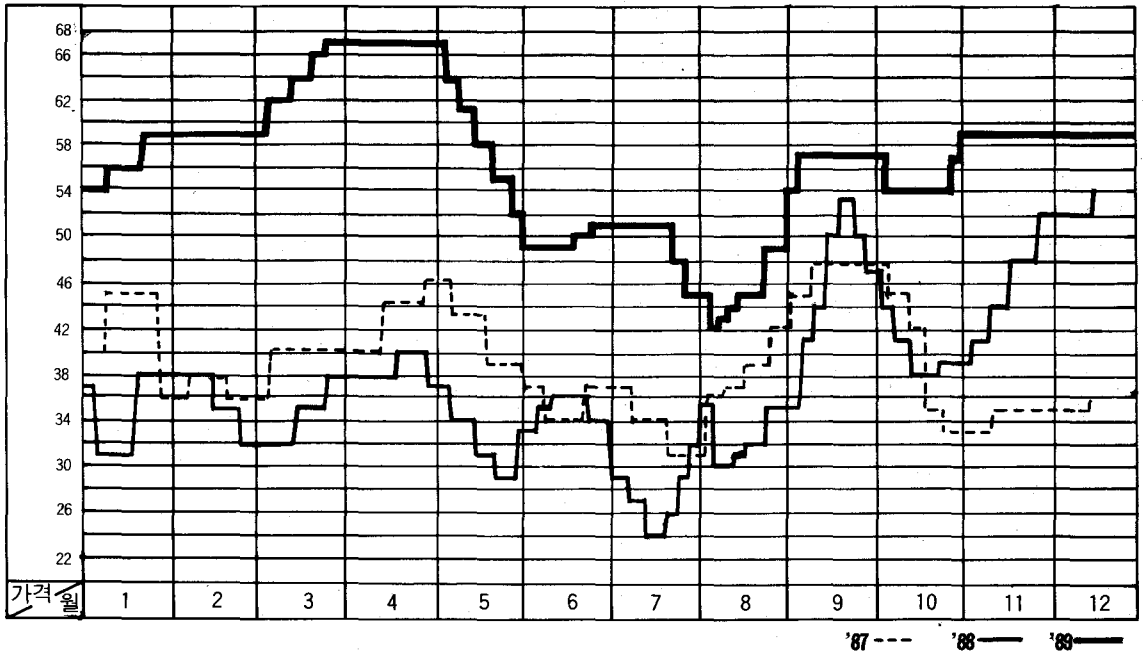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